

# 자연의 색감에 물들다

천연염색은 자연에서 나온 식물, 동물, 광물 등의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옷감에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재료로는 숯, 황토, 치자, 감, 쪽, 쪽, 홍화, 양파, 밤껍질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번 체험에서 사용하는 염료는 ‘코치닐Cochineal’로, 중남미의 선인장에 사는 연지벌레로부터 추출하는 적색계 염료입니다.

천연염료는 하나의 재료 속에 여러 빛깔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물의 농도로 색을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매염제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색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정음시립박물관이 준비한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 멋진 브띠스카프를 만들어보아요.

# 준비물

## 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

천, 가루염료(코치닐), 명반



## 집에서 준비해주세요

대야, 고무장갑, 종이컵, 나무젓가락





1

천을 비누로 세탁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2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 1/2컵과 명반을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저어 녹여요



3

대야에 뜨거운물과 2를 넣어요  
물 온도는 30~60°C, 물 양은 천이 잠길만큼 넣어요



주무르지 말고  
살살 흔들어주세요

4

천을 넣고 20분 동안 주름을 펴줘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3번 행궤요



**5**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 1/2컵과 염료를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저어 녹여요



**6** 대야에 뜨거운물과 5를 넣어요  
물 온도는 30~60°C, 물 양은 천이 잠길만큼 넣어요



주무르지 말고  
살살 흔들어주세요

**7** 천을 넣고 20분 동안 주름을 펴줘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3번 행궤요



**완성**  
그늘진 곳에서 자연건조 시켜요